



한강유역환경청, 「제2회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 공모 시작

한강유역환경청(청장:손희만)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친환경적 생활방식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에 「제2회 환경사랑 청소년 환경상」 후보자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초·중·고)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한다.

최근 3년간의 탐구·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상분야는 환경정책·환경문제·환경생태 분야 탐구와,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을 실천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환경보전 실천·활동분야가 있다.

응모방법은 학교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환경 탐구·활동보고서와 기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강청(지역협력과)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응모된 서류에 대한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현지실사를 통해 결정되며, 심사기

준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 목표 설정의 적정성과 목표달성 여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협력, 화합과 혁신에 의한 문제해결, 발표 내용의 명확성 및 효과성 등이 있다.

대상·금상은 그룹과 개인 각 1명씩, 은상은 각 2명씩으로 환경부장관상 및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은 12월 말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hanriver.me.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환경교육전용 사이트 '키드넷',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전용 사이트인 '키드넷'(www.keed.net)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년 9월의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됐다.

청소년권장사이트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고자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분기별 30개의 사이트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되면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장사이트 '아이틴넷' (www.iteennet.or.kr)에 청소년권장사이트 등록과 해당사이트 메인화면에 청소년권장사이트 마크를 이용할 수 있다.

키드넷은 교사, 민간단체 환경지도자, 학생 등이 환경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활동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유일의 웹 사이트이다. 2003년 12월 개통했으며 9월 현재 6,000여명의 회원이 가입, 총 33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청소년권장사이트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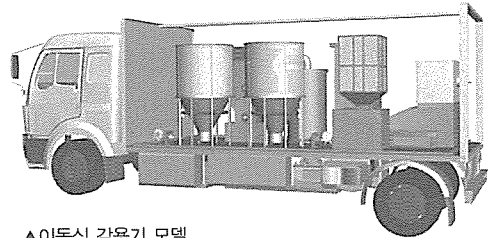
환경부는 키드넷 사이트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 동영상교육자료 99편을 등록했고, 지난 9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디지털컨텐츠 공모전을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 청소년권장사이트 마크의 색상은 청소년과 건전함을 의미하는 녹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음.

나. 클로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로고를 형상화함으로써 위원회에서 청소년권장사이트 마크를 수여함을 표현함.

다. 아래선은 메달을 형상화했으며, 건전 사이트의 이용을 확산 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냄.

해양수산부,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개발 착수



▲이동식 감용기 모델

어업활동 인해 발생하는 어업용 페스티로폼의 부피를 줄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8월 24일 대전 한국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에서 전문가, 어업인 및 환경관련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감용기 개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해양연구원 정노택 박사는 개발모델 및 중점 기술개발 사항을 소개하고 수요처인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상황을 기술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이동차량에 부착될 요소별 감용 장비를 개발하고 성능시험을 거쳐 시간당 30kg(60리터 부자 50개)를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를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동식 감용기 수요조사 결과 전남 완도, 경남 통영, 제주시 등에서 12대 정도를 요청한 상태다.

그간 정부는 고정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을 통해 연안에 산재하는 어업용 페스티로폼을 처리함으로써 연안환경보전과 폐기물 재활용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아왔다. 하지만 고정



식 감용기는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설치장소에서 먼 지역에서 발생하는 페스티로폼의 처리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고정식 감용기 설치는 토지매입 비용과 다 및 민원발생 등으로 보급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 수요자인 지자체에서 꾸준히 이동식 감용기 개발을 요구해 왔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동식 감용기가 개발되면 어업용 페스티로폼 발생·산재의 광역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어업용 페스티로폼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 국가간 이동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페스티로폼 처리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오염 종합평가를 위한 통합 대기환경지수 개발·보급

환경부는 대기중의 오염도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내 실정에 맞는 통합 대기환경 지수와 지수 등급별 국민행동요령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된 5개 대기오염물질(SO₂, CO, NO₂, O₃, PM₁₀)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별 인체 영향과 체감 오염도를 반영하여 통합 대기환경지수를 A~F까지 6개 등급(A: 좋음, B: 보통, C: 민감군 영향, D: 나쁨, E: 매우 나쁨, F: 위험)으로 구분하여 표시했다.

통합 대기환경지수(CAI, Comprehensive Air-Quality Index)는 기존의 AEI 지수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오염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변별력을 동시에 고

려하도록 개발했다.

통합 대기환경지수 계산방식은 0에서 500까지의 지수를 6단계로 나누어 점수가 커질수록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게 하였다.

대기환경지수의 점수 계산방법은 5개 대기오염물질의 점수 중 가장 나쁘게 나온 점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여러 대기오염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복합적인 위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지수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여 대기환경지수 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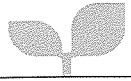
대기환경지수의 표현방식은 지수 점수외에 색상이나 지수 구간별 픽토그램(pictogram)을 사용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된다.

대기환경지수의 지수 구간별 상징색은 ‘좋음’은 파랑, ‘보통’은 초록, ‘민감군 영향’은 노랑, ‘나쁨’은 주황, ‘매우 나쁨’은 빨강, ‘위험’은 갈색으로 표시한다.

대기환경지수가 공개되는 형태에 따라 색으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 지수 구간에 알맞은 픽토그램(pictogram)을 사용하고, 대기환경지수의 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을 함께 표시한다.

아울러, 대기환경지수 등급별 행동요령을 설정하여 오염물질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영향과 대상집단을 고려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통합 대기환경지수는 앞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 시스템(Air Korea)과 지자체의 대기오염 옥외 전광판 등에 적용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지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자부, 에너지진단 세부절차 마련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을 제정, 지난 13일 고시했다.

이는 내년 7월부터 2,000toe(Ton of Oil Equivalent)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에너지진단은 전문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진단기관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해 설비를 포함, 에너지의 공급부문, 수송부문, 사용부문 등 전반에 걸쳐 에너지이용 현황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술 컨설팅이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의 수는 약 2,500여개로, 이들 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약 10%정도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다. 연간 158억 원의 진단비용으로 연간 1,481억 원(494천 toe/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예상된다.

금번 운영규정이 고시됨에 따라 2,000toe 이상의 사업자들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관리공단은 해당 사업장에게 지난 9월에 진단안내서를 우선 발송했다.

산자부는 5년주기중 최초로 진단을 받을 연도는 최근 5년간의 에너지절감 실적을 고려해 배정할 계획이다. 진단년도 배정시에는 에너지절감률이 낮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내년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된다. 만일, 진단배정년도 이전에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연도를 우선 배정한다.

2,000toe에서 5,000toe까지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 동 제도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진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석유환산톤 toe(Ton of Oil Equivalent)는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on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다. 1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한다. ◀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입회

- 문의:(02)852-2291~3(연합회 사무국)
- 자격:지역협의회 가입하지 않은 준회원